

과학적 이론과 실천의 상실

◇재야연구소를 찾아서(完) - 전문분야연구소(下)

- I. 종합편
- II. 종합사회연구소(上)
- III. 종합사회연구소(下)
- IV. 전문분야연구소(上)
- V. 전문분야연구소(下)

I. 문화예술연구소

원래의 '문화 예술 연구회'는 민중미술연구회' 후신으로 87년 '과학적 문예이론연구회'와 대중적 확산을 통해 민중·민중문화운동의 발전에 기여할'을 목적으로 설립된 진보적 학술단체였다.

그러나, 지난 89년 '노동자 문화예술운동연합'이 형성되면서 그간 '문화예술연구회' (이하 '문예연')로써 재편성되기에 이른 다.

현재는 대학원생 중심의 50여 명으로 이루어져 노동자자생문화·문예운동의 과학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자가 소부르조아적 의식

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자생성의 굴종'이 현대적 극복과제'라는 김창주(연구위원장)씨는 '문예연'에 대해 다음과같이 말한다. '한국문화운동연구소는 노동자의 생활문화, 이를테면 잡지, 커피에서 벗어나으로써 노동자의 자생성을 추구, 아직은 과학적 노동해방을 표명할 시기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문예연'은 과학적 노동해방사상과 자연성향적 노동운동의 결합을 추구하는 입장에 서있습니다.'

이념·정책·비평·미학, 문화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107명의 연구원과 자료수집소, 소련측 자료는 해외에서 직접 가져오기도 하나,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사상적 제약 때문에 북한측의 자료 수집에 곤란을 겪는다고 한다.

'문예연'은 '문예활동가는 노동자일 수도 있고 지식인 출신의 활동가일 수도 있지만 어느쪽이건 노동자계급의식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노동해방사상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II. 역사 연구소

'구로역사 연구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미래의 역사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과거의 역사로 무기를! 이라 씌어졌다.

민중이 주체권을 외치며 기존 민중과의 만남에서 역사연구의 검증방안을 추구해오던 '구로

(88년9월)와 '구로역사연구회' (88년11월)로 갈라져 발전해 왔음을 알게 되는데 이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망원한국사연구회' 시절 역사전반에 걸친 기본학술은 물론 한편이라 현재는 연구와 성과발표위주로 사업을 진행시킨다. 하나 연구소의 기본방향은 잡는 토론회를 연회 가지며 시사토론회를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하는 '구로역사연구회'는 '민중사회의 건설'이라는 가치와

원 18명의 출판, 원고료등으로 충당된다 한다.

연구분과는 전근대·이행기·근현대로 나누어지며 사무국·대의 협력부가 있어 노동상담소나 방송통신대등의 재야 단체에서 역사교육을 담당하며 출판물로는 '구로역사연구회보' (1·2호) '지방자치체역사' 등이 발간되었고 최근에 '바보보는 우리역사'를 내놓기도 했다. 또다른 역사문제다루는 연구소로 '역사문제연구소'를 들수있는데 이연구소는 지난 86년2월 과학적 역사학의 수립과 그 연구성과의 대중화를 목표로 설립된 현재는 300여명의 연구자로 이루어진 공동연구기관이다.

개별적 연구자가 갖기 쉬운 편견과 오류를 지양하고 실천성을 담보하기를 지향하고 있으며 연

연구활동이외에 역사대중화 활동으로 직장인, 교사, 일반시민 대상의 한국사교실과 동학농민전쟁 전적지 역사여행, '한국역사연구회'와 공동으로 '현대 한국사 인식의 과정과 전망'이란 주제로 한국사 특강등을 실시해왔다.

또한 1994년 동학농민전쟁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학술문화운동을 추진중이며 국제학술회의도 주최할 예정이라 하며 출판활동으로는 역사종합간행 '역사비평'과 '역사문제연구소'를 발행하고, 최근에 '민중해방운동사'라는 단행본을 출간했다.

현대의사생의 생생한 복원을 위해 관련자의 증언 기록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현대사는 아직 제대로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서 연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라고 이승렬(사업부장)씨는 현대사 연



권투장을 위해 지난 88년4월에 문을 열었다.

고립 분산된 차원의 운동을 극복하고 조직적 체계적인 노동운동을 위해 노동운동의 이론을 연구하며 노동계급의 정치의식 함양을 토대로 한국사의 민주주의 주제로 노동자가 설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노동운동연구소'는 전노련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교육사업을 추진중이며 노동운동 조합지원활동도 하고 있다. 주로 현장에서의 노동운동활동에 치중하나 이론연구분야에는 석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원도 있으며, 노동자학교운동, '노동동향'이라는 기관지 발행등의 사업을 진행중이다.

현재의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운동과 노동해방운동을 들수있는데 아직은 보보적 제도개선 투쟁에 그치고 있으나 양적인 운동역량 축적에 의한 노동자의 질적 정치사상의식 함양과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의 90년대 사업방향으로 잡고있다.

'석탄노동운동연구소'는 87년 10월 문을 열었으나 그이전 81년말부터 '석탄출판사'가 설립되어 노동운동가들을 간행해 왔고, 82년 생긴 '노동상담소'에서는 노동자들 대상의 상담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구원 설립 취지는 개인적인 노동운동 차원에서는 상담을 소회해 내기 힘들어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연구에 의한 상담, 교육, 출판을 위함이었다.

이 연구원은 상담, 교육을 통한 노동운동의 발전이 궁극적 목표이며 연구는 보조역할일뿐이라 한다. 최근에는 노동조합관련 상담이 많은 연구원의 정희민(교육부장)씨는 '제3자 개입금지'에 있습니다. '라미' '노동조합'과 '노동정의 조정법'에 명시된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조합원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금한다'는 조항에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전문직인 '새벽'을 발간하는 석탄출판사 대표인 최영희씨와 연구소장 장영국씨의 부부, 장자권씨 실 직원3명, 상담원명 등의 상근자 8명밖에 안되는 적은 인원이지만 하루 평균10명 가량의 노동상담자가 찾고 있다고 한다.

직장의 안정화, 명문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석탄노동운동연구소'는 공허한 이론을 추구하는 타연구원들보다 실천성을 띤 연구소라 말할수 있다.

(김유선 기자)

노동자 자생문화 발굴에 힘써

실증적 자료통해 현대사 재정립

역문연

역사연구소는 생산노동자의 삶의 터전이라 할수있는 구로구에 위치한다.

'구로역사연구소'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망원한국사 연구회' (88년12월)이 '한국역사연구회'

래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민족통일의 방향을 전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은 대부분 연구원의 회비로 운영되며 예를들면 경성경비가 월30만원 가량인데 연구회

구모임은 19세기 민중운동사·중국현대사·한국현대사·일제침략기 공산주의 운동사 등이 있어 일제하 개량주의 세력, 한국 자본주의 발달사, 일제하 사상사등을 연구한다.

구의 어려움을 언급한다.

같은 역사를 연구하는 두 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와 '구로역사연구소'를 두고 볼때 '구로역사연구소'가 민족지향적으로 실증성을 위한 연구단체라면 '역사문제연구소'는 학술목적의 연구기관이라 할수 있다.

III. 노동문제 연구원

필자가 노동문제에 관해 방문한 두기관은 '우리노동문제연구소'와 '석탄노동운동연구소'인데 이들 단체는 '노동'이란 나타내주듯이 무척이나 실천적인 실천에 따르는 연구자집단의 필요에서 설립된 연구소들이다.

'우리노동문제연구소'의 경우 87년 투쟁이후 민중의 정치진출역과 좌향하는 노동자의 생존

인민의 소리'를 발간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도 하였고, 신문 '해방'을 창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두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복잡한 시대를 살면서 시대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철학, 소설, 희곡, 평론, 시나리오를 써왔고 써내었다. 또 1963년에 저술한 '말'이 1964년의 노벨문학상으로 선정되었으나 거절되어 세상을 놀라게 한 적도 있다.

그는 인간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고 인간의 문제에 대한 감탄을 썼다. 그의 모든 글은 청년기에 형성된 인간관을 철학으로, 소설로, 희곡으로, 평론으로, 시나리오로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신도, 인간의 본성도, 운명도, 초월적인 규범도 부인하고 고독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서술하고 있다.

표적인 문학인이며 '글쓰는 예술'을 편견없이 검토해 보려는 작품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글을 쓰는가? (저자의 문제) 누구를 위하여 글을 쓰는가? (독자의 문제)하는 세가지의 문제로 구성된 작품이다. 문학이란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매개행위이며 독자가 읽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를 선택하고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것은 작가의 자유가 독자의 자유에게 조건없이 호소하는 것이다.

글쓰는 사람의 사회성이나 참여론은 당시와 일치하지만 글이 독자의 자유에게 저자의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호소라는 점에서 Sartre는 당시의 문학노선과 달랐다. 그는 계급투쟁에 유용한 작품을 쓰지 못하는 작가는

남기영
(문대교수·철학)

인간을 절대적 자유의 존재로 부각 글쓰는 예술의 편견없는 검토 시도

인간을 '불모없는 수난'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절대적인 자유'로 표현하기도 한다. 인간에게는 존재가 본질에 선행하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철학은 어렵고 그의 소설은 더럽고 구역질이 난다. 그래서 겁먹고 웅색한 보수주의자들은 그를 '저속한 사발뜨기'라고 욕한다.

이번에 배기열 교수는 그의 글 중에서 가장 간결하고 명확한 글 두편을 골라 번역하였다. '문학이란 무엇인가?'는 그가 1947년에 참여문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답변하기 위하여 발표한 대

위대한 작가일 수 없다는 맑시스트들의 문학관은 문학의 자율성을 배제하고 작가를 무시하며 문학을 정치적인 이념에 종속시키는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한다.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는 지식인의 갈등을 풀어주려고 1948년에 Maintenant이라는 클럽에서 강연한 것을 책자로 발행한 것이며 인간의 자유, 실존, 본질, 지향성, 상황, 책임등 그의 내한한 철학을 알기쉽고 간명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결국 Sartre의 모든 작품들의 근원을 이루는 철학자집사라고 할 수 있다.

혼란기를 살면서 시대 상황에

서평

배기열 교수는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성인의 모순성과 까다로움을 독특한 방법으로 체험하면서 살다 간 Sartre의 문학과 철학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문학이란 무엇인가?'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를 우리말로 옮겨서 '문학이란 무엇인가?'라고 제목을 붙여 출판하였다.

Sartre는 개인적으로는 복잡하고 사회적으로는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한 지성인이다. 1905년에 태어나 1980년 까지 76년간을 살았다. 두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외가에서 외할아버지와 살다가 열한살 때 어머니가 재혼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를 따라 이사를 하는 등 부유하기는 하였지만 비교적 복잡한 유년기와 소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의 수재 코르소를 밟아서 파리 고등

정당의 명작(?) 민자당

물가 폭등을 하고 있다. 민중들의 생존권이 곤두박질 하고 있는 셈이다.

특정당이 사퇴를 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신들의 입지구축에 집착 한 나머지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10대 청소년들이 제자리를 못찾고 있다. 대낮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파란치한 행동으로 인해 단란한 한 가정의 무너져가고 있다.

KBS 방송국이 진통을 겪고 있다. 방송국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대표가 우두머리자리에 앉았다고 고집하고 있는 모양이다.

학교가 마비되고 있다. 학생이 두명이나 되어 학생들이 제대로 배움의 터에 자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난점이 하루도 조용하지 못하다.

가치관의 혼란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다. 그대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있다. 남한의 구성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불안한 현실속에서 하루하루를 꾸러 나가고 있다.

요사이 가장 근심·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마 '물가'일 것이다. 물가가 하늘 높은줄 밖에 모르면, 백성들의 눈물조차 감동되어 범람을 하곤 한다. 백성들의 생계와 직결된 쌀값은 일반민의 경우 한가마당 소매가격이 연초의 9만7천~9만8천원에서 10만5천을 웃돌고 있다.

요사이 가장 근심·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마 '물가'일 것이다. 물가가 하늘 높은줄 밖에 모르면, 백성들의 눈물조차 감동되어 범람을 하곤 한다. 백성들의 생계와 직결된 쌀값은 일반민의 경우 한가마당 소매가격이 연초의 9만7천~9만8천원에서 10만5천을 웃돌고 있다.

요사이 가장 근심·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마 '물가'일 것이다. 물가가 하늘 높은줄 밖에 모르면, 백성들의 눈물조차 감동되어 범람을 하곤 한다. 백성들의 생계와 직결된 쌀값은 일반민의 경우 한가마당 소매가격이 연초의 9만7천~9만8천원에서 10만5천을 웃돌고 있다.

창시자의 명작(?) 민자당

물가 폭등을 하고 있다. 민중들의 생존권이 곤두박질 하고 있는 셈이다.

특정당이 사퇴를 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신들의 입지구축에 집착 한 나머지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10대 청소년들이 제자리를 못찾고 있다. 대낮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파란치한 행동으로 인해 단란한 한 가정의 무너져가고 있다.

KBS 방송국이 진통을 겪고 있다. 방송국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대표가 우두머리자리에 앉았다고 고집하고 있는 모양이다.

학교가 마비되고 있다. 학생이 두명이나 되어 학생들이 제대로 배움의 터에 자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난점이 하루도 조용하지 못하다.

가치관의 혼란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다. 그대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있다. 남한의 구성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불안한 현실속에서 하루하루를 꾸러 나가고 있다.

요사이 가장 근심·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마 '물가'일 것이다. 물가가 하늘 높은줄 밖에 모르면, 백성들의 눈물조차 감동되어 범람을 하곤 한다. 백성들의 생계와 직결된 쌀값은 일반민의 경우 한가마당 소매가격이 연초의 9만7천~9만8천원에서 10만5천을 웃돌고 있다.

요사이 가장 근심·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마 '물가'일 것이다. 물가가 하늘 높은줄 밖에 모르면, 백성들의 눈물조차 감동되어 범람을 하곤 한다. 백성들의 생계와 직결된 쌀값은 일반민의 경우 한가마당 소매가격이 연초의 9만7천~9만8천원에서 10만5천을 웃돌고 있다.

요사이 가장 근심·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마 '물가'일 것이다. 물가가 하늘 높은줄 밖에 모르면, 백성들의 눈물조차 감동되어 범람을 하곤 한다. 백성들의 생계와 직결된 쌀값은 일반민의 경우 한가마당 소매가격이 연초의 9만7천~9만8천원에서 10만5천을 웃돌고 있다.

취직시험, 직장에서의 승진을 보장하는 '90년형 최신 TOEIC 시리즈!

TOEIC 800점 대책시리즈

- 경향과 공략법
- WORD POWER대책
- IDIOM대책

나머지3권도 계속 발간됩니다

- READING 대책
- 문법/STRUCTURE 대책
- LISTENING 대책

대학원 진학, 취직시험, 유학시험, 각종 고시 준비는 이것으로 끝!

TOEFL 600점 전략시리즈

- 문법/STRUCTURE 전략
- WORD POWER전략
- READING 전략
- IDIOM 전략

나머지2권도 계속 발간됩니다

- 경향과 공략법
- LISTENING 전략

10년 영어공부를 단시일내에 해결해주는 희귀한 ELT교재!

영어신문·잡지를 재미있게 읽는 법

교실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英語**

미국 **英語** 이래서 재미있다

나의 영어실력은? (Test Your English)

시사영어사가 독점수입 공급하는 영어회화교재!

Spectrum: A Communicative Course in English

New English Course Side by Side

Side by Side (2nd EDITION)

CREATIVE에 등수는 없다.

상처가 클수록 더욱 아름다운 진주를 머금은 조개처럼 흔해져가는 광고속에 흔하지 않은 광고인이 되고 싶다.

광고인 / 그 첫발이 JAG에서 기쁘다.

THE 4th JAG INNOVATION GRANDPRIZE 眞露廣告大賞

모집요강

1. 공모자격 / 전국대학 이상 대학원생, 사회인
2. 공모기간 / 1995. 10. 1 ~ 1995. 11. 31 (11월 31일까지)
3. 공모요령 / 1) 주제 / (주) 세그먼트에서 배포하는 과제보고서(제출 필수)를 읽고 2) 규격 / ① 신문광고: 5단(세로) 10단(가로) ② TV광고: 10단(세로) 10단(가로) ③ CF: 10단(세로) 10단(가로) 3) 기법 / ① 신문광고: TV광고와 유사하게 필히 우두머리 부속을 배치하고 ② TV광고: 필히 우두머리 부속을 배치하고 ③ CF: 필히 우두머리 부속을 배치하고 4) 기타 / ① 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②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③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④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⑤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⑥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⑦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⑧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⑨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⑩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⑪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⑫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⑬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⑭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⑮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⑯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⑰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⑱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⑲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⑳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㉑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㉒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㉓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㉔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㉕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㉖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㉗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㉘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㉙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㉚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㉛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㉜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㉝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㉞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㉟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㊱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㊲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㊳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㊴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㊵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㊶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㊷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㊸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㊹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㊺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㊻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㊼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㊽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㊾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㊿ 과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당선소감”

1.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2.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3.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4.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5.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6.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7.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8.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9.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10.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11.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12.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13.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14.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15.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16.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17.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18.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19.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20.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21.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22.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23.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24.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25.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26.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27.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28.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29.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30.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31.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32.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33.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34.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35.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36.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37.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38.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39.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40.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41.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42.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43.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44.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45.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46.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47.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48.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49.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

50. 당선소감 / 당선된 후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